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2면

나를 찾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5 리부트 캠프

3면

‘아구는 처음, 그러나 승부는 진심’
채널A 새 예능 ‘아구여왕’, 11월 25일 첫 방송

4면

한국인 노리는 해외 범죄 단지 실체를 찾아서
캄보디아 현장 누비며 추적 보도

Luux의 빛과 3000명의 함성으로 가득찬 doodle Live



11월 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를 배경으로 도심 속 라이브 콘서트 ‘두들라이브(doodle Live)’가 처음으로 열렸다. 라이브 콘서트 무대에 오른 첫 아티스트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워너 강승윤. 강승윤이 4년 7개월 만에 발매한 솔로 정규 2집 복귀 무대가 두들라이브를 통해 펼쳐지면서 가을밤 청계광장은 룩스가 뿜어내는 빛과 3000여 명의 함성, 그리고 노래로 가득 채워졌다.

태국에서 온 ‘1호 관객’ “공연 보기 위해 입국”

콘서트는 오후 7시 시작 예정이었지만 이날 이른 오전부터 관객들은 줄을 서기 시작했다. 지인과 함께 오전 4시부터 대기해 첫 번째 입장 순서를 받게 된 주인공은 태국에서 온 나디아 씨(23). 나디아 씨는 “강승윤의 컴백 무대가 서울에서 대형 사이니지와 함께 진행된다는 특별한 소식을 접하고 바로 한국으로 오는 항공권을 예약했다”고 말했다.

새벽부터 늘어난 입장 대기 줄은 오후가 되자 더 길어졌고, 동아미디어센터는 물론 일민미술관 앞까지 관

객들로 가득 찼다. 이번 공연 전에는 향수 등을 선물로 주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와 즉석 셀프 사진 촬영이 가능한 ‘포토이즘’ 부스를 설치해 오랜 시간 공연을 기다리는 관객들이 지루함을 덜어낼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오후 6시 50분부터 동아미디어센터에 설치된 룩스를 통해 강승윤의 2집 복귀 예고 영상이 나오자 스탠딩존에 입장한 관객들의 시선은 일제히 초대형 미디어 사이니지에 쏠렸다. 압도적인 규모의 룩스를 본 관객들은 “이런 특별한 컴백 무대는 처음”이라며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에 바빴다.

10분 뒤 강승윤과 밴드 멤버들이 무대에 올라 첫 곡 ‘와일드 앤 영(WILD AND YOUNG)’을 부르기 시작하자 청계광장은 록 페스티벌 공연장으로 바뀌었다. 퇴근하던 직장인들은 귀에 꽂은 이어폰을 빼고 발길을 멈췄고, 광화문과 청계광장을 찾은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었다.

관람객 박준오 씨(42)는 “가족들과 광화문 일대를 자주 산책하는데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두들라이브가

처음”이라며 “안전하게 역동적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청계광장 주변 사무실에서 야근 중에 동료와 나온 김민선 씨(31)는 “공연을 보며 제대로 기분 전환이 됐다”며 “초대형 사이니지와 연계된 이런 공연이 자주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가 계속되자 강승윤은 예정된 공연 종료 시간인 오후 8시를 훌쩍 넘겨 앙코르 곡 3개를 더 부르고서야 무대를 떠났다. 강승윤은 “청계광장에서 관객들과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뜻깊은 무대를 경험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룩스의 확장은 계속된다

이번 공연을 준비한 경영전략실 시빅스팀은 룩스를 도심 속 문화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첫 시도로 두들라이브를 기획했다. 강승윤의 공연도 룩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돼 현장 관객뿐만 아니라 버스나 자가용을 타고 퇴근하는 시민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연출했다. 공간과 콘텐츠, 기술이 하나로 이어진 도심 속 라이브 콘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실제

로 이날 스탠딩존은 물론 청계광장 주변까지 가득 채운 3000여 명의 관객이 공연을 즐겼다.

공연 현장은 서울시와 종로경찰서 등의 협조를 통해 사전 교통 통제와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 질서 있게 운영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안전 요원과 구급차도 배치됐고, 현장 스태프들은 관람객 동선을 안전하게 유도해 혼잡을 최소화하면서 사고 없이 행사를 마무리했다. 또 이번 공연에는 동아일보 편집국-미디어솔루션본부·경영지원국, 채널A 보도본부, 동아닷컴, 채널A 뉴스비전, 채널A 미디어텍 등 다양한 동아미디어 그룹의 조직들이 힘을 보탰다.

앞으로 시빅스팀은 룩스를 통해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공연과 인터랙티브 콘텐츠, 팬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첫 두들라이브의 현장 영상과 비하인드 영상은 시빅스팀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경영전략실 시빅스팀 박정서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지민구



① 11월 13일 리부트 캠프 참가자들이 제주에서 감귤따기 체험을 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② 감귤 체험 뒤 열린 쿠킹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수제 감귤잼을 만들고 있다. ③ 참가자들이 캠프 마지막날 워크숍에서는 전날 서귀포 올레시장에서 서로를 응원하기 위해 구매한 선물을 주고받으며 활짝 웃고 있다.



‘Ctrl+F: 찾아보기 → Ctrl+Z: 돌아보기 → Ctrl+Y: 나아가기’ 나를 찾고,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이야기

2024년 상반기 입사자 14명, ‘Ctrl+Reboot’ 콘셉트로 2박 3일 리부트 캠프 참여

“Press Ctrl+Reboot!”

11월 12일 제주의 맑고 선선한 하늘 아래 2025 동아미디어그룹(DAMG) 리부트 캠프가 막을 올렸다. 지난해 상반기 수습 입문 과정을 수료한 14명의 구성원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입사 후 1년 반의 여정을 돌아보고, 성장 방향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PD, 기자, 미디어경영직 등 서로 다른 직군의 구성원들이지만, ‘Ctrl+Reboot’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다시 연결될 수 있었다.

14일까지 사흘간 열린 이번 리부트 캠프는 ‘Ctrl+Reboot’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모두에게 익숙한 단축키를 활용해 ‘자기탐색(Ctrl+F: 찾아보기)→경험회고(Ctrl+Z: 돌아보기)→성장설계(Ctrl+Y: 나아가기)’로 이어지는 3단계 여정을 밟은 것. 참가자들은 각자의

1년 반을 차분히 돌아보며 지금의 나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성장 방향을 그렸다.

나를 찾고, 돌아보고, 다시 그리는 3일

첫날 ‘Ctrl+F: 찾아보기’ 워크숍에서는 각자의 업무로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시작을 함께했던 동기들과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 펼쳐졌다. 서로의 성향과 특징을 탐색하는 조별 게임이 진행되자 자연스럽게 웃음이 오가기 시작했다. 한 조는 ‘처음엔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 동행하는 동기들이 있습니다.’라는 문장을 남기며 입사 이후 쌓인 관계의 깊이를 표현했다.

둘째 날 ‘Ctrl+Z: 돌아보기’ 워크숍에서는 사전 과제를 바탕으로 입사 후 발자취와 개인의 성장 여정을 공유했다. 사전 과제로 작성한 기사와 이틀간 촬영한 개인

사진을 신문에 붙여 ‘나만의 신문’을 완성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자신의 이야기와 리부트 캠프의 순간을 한 지면에 정리하며 입사 이후의 여정을 다시 되짚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

이어 업무 속에서 마주한 도전과 성취의 순간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편성전략본부 편성기획팀 김도연 PD는 “입사 후부터 지금까지 시장 전체를 조망하며 회사의 콘텐츠 전략과 연결하는 시각을 키웠다”고 말했다.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 김정은 매니저는 “교육 업무는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고, 앞으로는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날 ‘Ctrl+Y: 나아가기’ 워크숍에서는 일할 때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

DAMG에서 어떤 성장을 이루고 싶은지를 탐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가치관과 일하는 태도를 다시 정의하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성과를 내는 사람’,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몰입하는 사람’ 등 자신의 언어로 ‘일하는 나’를 표현했다.

함께 웃고, 함께 기억하는 시간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온전히 느끼며 스스로를 다시 리부팅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천제연 폭포에서 진행된 포토 미션에서는 각 조가 직접 만든 포즈와 구호를 활용해 자신들만의 개성을 사진 속에 담았다. 이어진 올레시장 미션에서는 다른 조에게 전하고 싶은 제주 선물을 직접 고르고, 따뜻한 메시지를 함께

담았다.

또 제철 제주 감귤을 직접 수확하고, 스콘과 감귤잼을 만드는 체험과 함께 제주의 다양한 티 원물을 블랜딩해 ‘나만의 차’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의 향을 담아 만든 티백은 서울로 돌아와 리부트 캠프의 순간을 다시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선물이 됐다.

김재호 동아일보·채널A 회장은 올해도 2, 3일 차 캠프 일정에 동행하며 참가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김 회장은 “2박 3일간의 리부트 캠프가 서로와, 다른 직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 전연진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 이미선

다시 짜는 글로벌 성장 전략… ‘2025 체어스 포럼’ 첫 개최

채널A·동아일보 주최… 현장 토크쇼 접목해 참석자 큰 호응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한 제1회 ‘2025 체어스 포럼’이 10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체어스 포럼’은 현장 토크쇼를 접목시킨 포럼으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포럼은 ‘지오노믹스 3.0 시대: 다시 짜는 글로벌 성장 전략’을 주제로 진행됐다.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리츠키 석좌·컬럼비아대

럼비아대 교수,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등이 주요 연사로 참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에 필요한 조언을 건넸다. 오후 세션 기조강연에 나선 스나이더 소장은 “한미 관세 협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채널A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뉴스 TOP10>을 진행하는 김중석 앵커가 오전 세션 사회를, 메인 뉴스인 <뉴스A>의 정하니 앵커가 오후 세션 사회를 각각 맡았다. 김 앵커는 크리스텐슨 교수의 강연이 끝난 이후에는 김중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초대해 시사 토크쇼 형식의 특별 세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느 포럼에서

보기 힘들었던 새로운 형식의 세션에 청중들은 “뉴스 TOP10을 현장에서 참관한 듯한 느낌”, “시사토크에서 배운 점도 많았다”라며 호평을 이어갔다. 또 가로 20m 세로 5m 길이 초대형 LED 화면이 포럼의 배경을 장식해 청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포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국

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 주한 일본대사 등 다양한 정관계 및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통상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다뤄진 이번 체어스 포럼 연설과 토론은 채널A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전략기획본부 비즈니스기획2팀 이권혁



① 10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체어스 포럼’에서 토머스 크리스텐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프리츠키 석좌·컬럼비아대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② 이날 오후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의 미국 관세 정책에 관한 기조 강연이 이어졌다.
③ 김중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특별 세션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



‘야구는 처음, 그러나 승부는 진심’… 채널A 새 예능 ‘야구여왕’, 11월 25일 첫 방송



① 국민 골프영웅 박세리가 ‘블랙퀸즈’의 단장을, 메이저리거 출신의 추신수가 감독을 맡았다. ②, ③ 축구선수 출신 주수진,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김은아 선수를 비롯한 ‘블랙퀸즈’ 선수들의 연습 경기 모습. ④ 채널A 신규 예능 ‘야구여왕’ 포스터.



‘처음 던지는 공, 처음 잡는 글러브, 하지만 승부는 진심이다!’

채널A가 선보이는 신규 스포츠 버라이어티 <야구여왕>이 11월 25일 시청자들을 만난다. 야구여왕은 각기 다른 종목의 레전드 여성 선수들이 ‘블랙퀸즈’라는 이름의 야구단으로 모여 낮은 야구에 도전하며 성장하는 과정을 담았다.

단장, 감독, 코치, 선수 모두 ‘레전드’
‘블랙퀸즈’는 단장과 감독, 코치진 뿐만 아니라 선수단까지 각자의 종목에서 최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모여 꾸려진 팀이다. 국민 골프영웅 박세리가 단장을, 메이저리거 출신의 추신수가 감독을 맡았고 프로야구의 슈퍼스타였던 윤석민과

이대형이 코치로 합류했다. 선수단에는 육상 김민지, 리듬체조 신수지, 핸드볼 김은아·박하얀, 유도 김성연, 수영 정유인, 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소프트볼 아야카, 복싱 최현미, 사격 박보람, 조정 이수연, 축구 주수진, 아이스하키 신소정, 배드민턴 장수영, 테니스 송아가 합류했다. 각기 다른 트로피를 품었던 ‘여왕’들이 한 팀으로 뭉쳐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향해 훈련 중이다. 이처럼 화려한 스포츠 스타들이 합류하면서 야구여왕은 본방송 전 공개된 티저 영상의 누적 조회수가 이미 150만 회를 돌파했다. SNS에는 “선수 라인업이 레전드급”, “야구가 처음인데 슬라이딩 장면이 예술”, “이 조합이면 무조건 본방사수” 등 기대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특히

25m를 3.36초 만에 주파한 김민지의 주루 능력과 소프트볼 선수 출신인 아야카의 정교한 제구력 등이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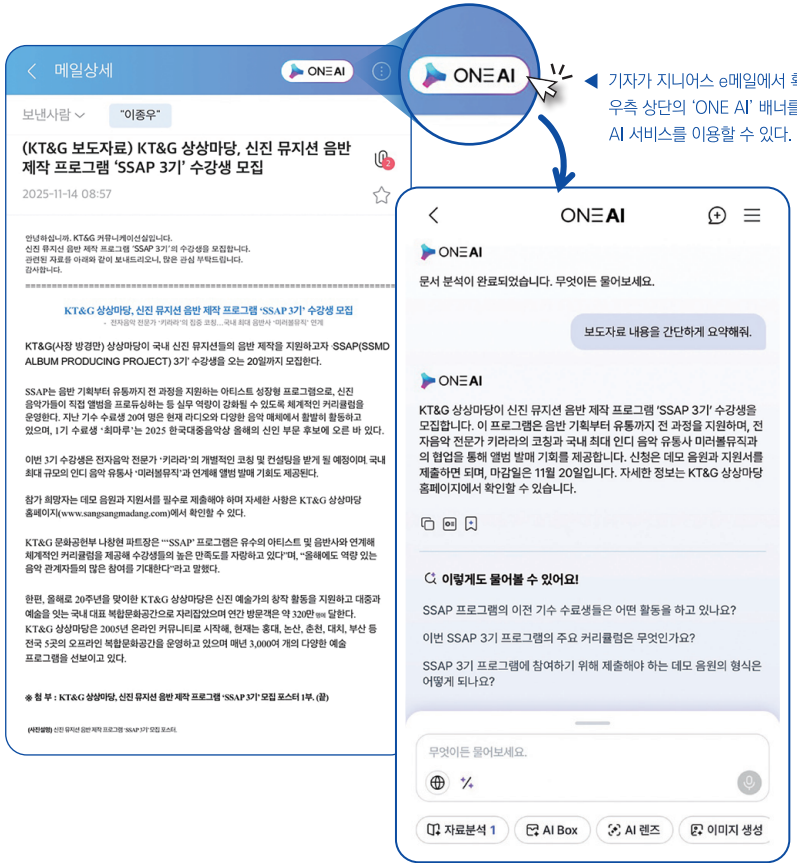
제작진 “성장의 순간이 감동으로”
연출을 맡은 채널A 스튜디오E 1CP의 신재호 PD는 야구여왕의 관련 포인트로서 서로 다른 종목의 기술이 야구 안에서 뽐내며 시너지를 낳았다. 핸드볼 선수의 폭발적인 투구, 테니스 선수의 스윙, 육상 선수의 순발력이 야구라는 종목에서 새로운 힘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이 야구여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신 PD는 “초반엔 개인종목과 단체종목 선수들 사이의 사고방식이 달랐지만, 박세리 단장과 추신수 감독이 팀의 가치를 강조하며 하나의 목표로 묶어냈다”며 “이

제는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진짜 팀이 됐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야구는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종목으로 공 하나를 던지고, 잡고, 치는 모든 과정이 도전이었다”며 “시행착오와 좌절, 그리고 성장의 순간들이 시청자들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방송 당일인 11월 25일에는 박세리 단장, 추신수 감독과 선수들이 제작발

표회에 참석해 여성 스포츠 예능의 새로운 출격을 알릴 예정이다. 또 채널A는 초대형 미디어 사이니지 룩스(LUUX)를 통해 야구여왕의 홍보 영상도 선보이고 있다. 야구는 처음이지만, 승부에는 누구보다 익숙한 그녀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은 11월 25일 밤 10시 첫 공개된다.

편성전략본부 C-밸류업팀 정수민

그룹웨어 지니어스에 생성형 AI 적용… 메일 요약, 번역, 오타자 수정 등 업무 효율 상승 기대



동아미디어그룹의 그룹웨어 지니어스(Genius)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1월 4일 지니어스에 ‘ONE AI’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동아미디어그룹 구성원들은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것.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니어스 화면 오른쪽 상단에 ONE AI 버튼이 새롭게 마련됐고, 이를 누르면 챗봇 형태로

작동하는 서비스가 실행된다. 사용자는 간단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이메일 요약, 번역, 오타자 수정 등 다양한 업무를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외국어로 된 이메일과 문서를 빠르게 해석하거나 긴 문서의 핵심을 정리해주는 기능은 바쁜 실무 환경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ONEFFICE 혹은 ONE AI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경우, ‘AI 보이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다. AI 보이스로 회의 내용을 녹음하면 자동으로 텍스트 변환이 가능하고, 이를 ONEFFICE를 통해 회의록 초안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또 ‘AI BOX’는 여러 문서를 하나의 지식 상자로 묶어



동아닷컴은 총정으로 사옥에서 그룹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ONE A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두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고서 작성과 자료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다. 특정 프로젝트나 주제와 관련된 문서를 저장해 두고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할 수 있어 공유받은 직원은 문서를 일일이 열어보지 않아도 질의를 통해 정리한 핵심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ONE AI는 ChatGPT와 MS AZURE 기반의 모듈로 기술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됐다. 동아닷컴 비즈테크팀은 AI 서비스 도입에 앞서 지니어스를 사용하는 13개 그룹사의 로고를 분석해 메일·전자결재·게시판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능임을 확인하고, 해당 영역에 우선적으로 AI

기능을 적용했다. 실제 업무 흐름상 효율성과 자동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 또 동아닷컴은 사흘간에 걸쳐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와 충청로 사옥에서 그룹 구성원을 대상으로 ONE AI 활용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메일을 읽을 시간이 부족할 때 요약 기능을 활용하면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보자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앞으로 동아닷컴은 그룹 구성원들의 ONE AI 사용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AI 서비스 확대도 준비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비즈테크팀 최정윤

한국인 노리는 해외 범죄 단지 실체를 찾아서 캄보디아 현장 누비며 추적 보도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해외 범죄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캄보디아 곳곳에 있는 범죄 단지 ‘벤처’에선 납치와 감금은 물론이고 잔혹한 고문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줬다.

이에 따라 동아미디어그룹 취재진은 10월 범죄의 심각성과 실체를 알리기 위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캄보디아 현장을 찾았다. 취재진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현지에서 계속되고 있었지만 동아미디어그룹의 기자들은 현장을 발로 뛰며 팩트의 조각을 모아 사태의 심각성을 생동감 있게 전달했다.

아찔한 상황에서도 담은 생생한 화면

채널A 보도본부 취재팀은 범죄 단지가 밀집한 캄보디아 남서부 시아누크빌 현장 취재에 집중했다. 정책사회부 최다함

기자는 7박 8일 동안의 캄보디아 출장 중 가장 아찔했던 순간으로 10월 18일 영상 취재 기자가 범죄 단지 기숙사로 추정되는 건물을 촬영한 뒤 주변 카지노 보안 요원에게 붙잡혔던 상황을 꼽았다.

최 기자는 “촬영 스태프로부터 ‘중국인 보안 요원들에게 영상 취재 기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긴급한 문자를 받고 동행한 PD와 함께 전력 질주를 했다”며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판단이 들어 스마트폰으로 녹음과 촬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도착한 현장에는 중국인 보안 요원 10여 명이 영상 취재기자와 촬영 스태프를 둘러싼 채 위압적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카지노 건물로 들어가서 취재팀이 촬영한 영상을 모두 지우자고 요구했다. 순순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 최 기자는 영상취재 기자가 저장용 SD카드를 따

로 빼둔 걸 확인한 후 침착하게 영상만 삭제하고 현장을 떠나겠다고 설득했고, 결국 카지노 건물로는 동행하지 않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동행한 PD는 현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 취재팀과 일행이 아닌 척 주변에서 이 모든 장면을 화면에 담았고, 다음 날 캄보디아 범죄 단지 일대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담은 채널A 뉴스 리포트가 시청자들을 만났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다”

동아일보 사회부 권구용 기자는 정서영 기자와 함께 10월 15일 출장 통보를 받고 다음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캄보디아로 향했다. 빠르게 현장으로 출발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취재해야 할지 정해진 건 없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은 수소문 끝에 현지 사정에 밝은 캄보디아 교민과 연결돼 기초적인 취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를 통해



①



②

- ① 캄보디아 범죄 단지 주변을 취재하고 있는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최다함 기자.
- ② 캄보디아와 베트남 국경 지역의 범죄 단체 조직원 도주 현장을 포착해 보도한 동아일보 10월 20일자 지면.

캄보디아 국경 도시 바베트에 범죄 단지 조직원들이 도주하는 경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곧바로 바베트로 향한 권 기자는 범죄 조직의 도주 경로로 추정되는 거리를 걸으며 현장을 스케치하고 주민들을 취재하기 시작했다. 결국 한 식료품 가게 앞에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고급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포착했다.

이상한 김새를 느끼고 현장을 주시하다 보니 승합차의 트렁크에 컴퓨터 여러 대가 실려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권 기자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현장을 스케치했고, 추가 취재를 통해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이 베트남으로 도주하는 실상을 기사로 출고했다. 권 기자는 “새로운 팩트를 발굴하고 확인하기가 정말 힘든 취재 환경이었지만 결국 현장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며 “다시 한번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보도본부 정책사회부 최다함

편집국 사회부 권구용

업계 전문가에게 듣는 탁월함의 비결… ‘HBR 커리어 크래프트’ 개최



11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회 ‘HBR 커리어 크래프트’에서 이호민 메가MGC커피 최고마케팅책임자(CMO)가 강연을 하고 있다. 이날 강연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50여 명의 참석자가 현장을 찾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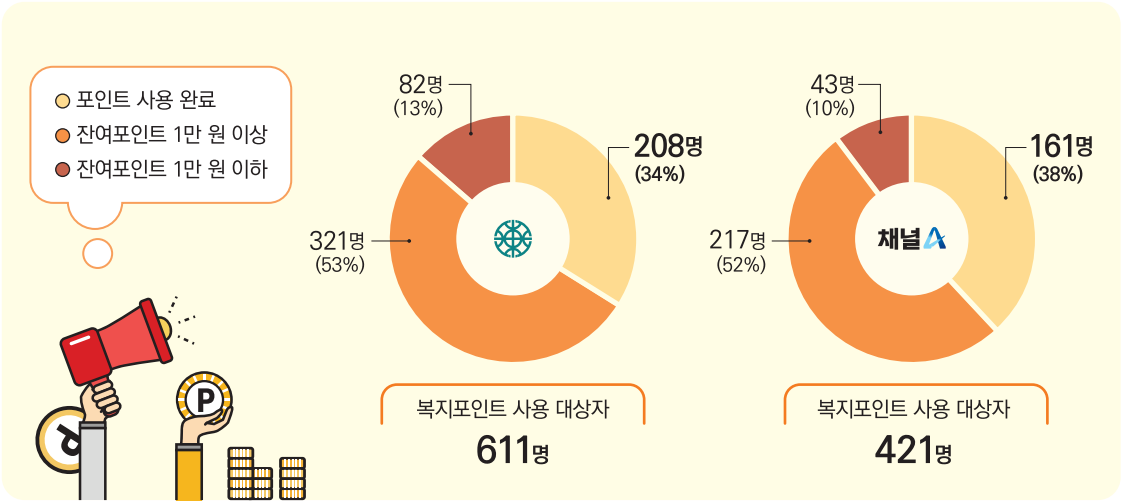
동아일보 미래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제4회 ‘HBR(하버드비즈니스리뷰) 커리어 크래프트’가 ‘탁월함의 비결, 일 잘하는 사람에게 배우다’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개최됐다. 11월 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강연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탁월한 성과를 낸 연사들이 어떻게 커리어를 개발해 왔는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말 중일 진행되는 유료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부터 중간 관리자,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시니어까지 약 250명이 참석해 질문을 이어가며 현장을 채웠다. 1회 100명 규모로 출발한

행사는 2, 3회 때는 200여 명으로 성장한 데 이어 한층 확대된 규모로 마무리됐다. 연사로는 의사이자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거쳐 신세계그룹 최연소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된 이승민 어뮤즈 대표, MZ 마케터들과 함께 메가MGC커피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는 이호민 최고마케팅책임자(CMO) 등이 나섰다. 저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연사들은 “인공지능(AI)을 도구로 삼아 치열하게 도전하라”, “자기다움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라”는 등의 메

시지를 강조했다. 강연장을 메운 참석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참석자들은 “실패와 성장의 스토리가 강연 전반에 잘 녹아 있어 몰입도가 높았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어 좋았다”는 등의 후기를 남겼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미래전략연구소 사업전략팀 양민석 과장은 “앞으로도 트렌드를 관통하는 주제와 메시지를 통해 HBR 커리어 크래프트가 더 확고하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전략연구소 X1팀 김윤진

복지 포인트, 올해 안에 사용하세요



올해 1월 1일 지급된 동아일보, 채널A 복지포인트의 사용 기한이 12월 31일로 끝난다. 미사용 포인트는 내년으로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올해 남은 기간 중 복지포인트를 사용해야 한다. 올해 동아일보와 채널A 구성원에게는 1인당 200만 포인트(일반 160만, 겸직 40만)가 지급됐다. 6일을 기준으로 잔여 포인트가 1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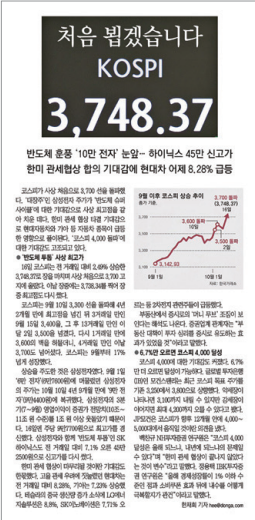
포인트 이상 남은 사원은 동아일보 321명, 채널A 217명이다. 이 중 포인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원도 동아일보 11명, 채널A 6명이다. 포인트 사용 방법은 지니어스 사내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 현황은 베네피아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볼 수 있다. 베네피아몰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식료품, 가전제품, 의류, 화장품 등을 구매할 수 있고 영화/전시/공

연/스포츠 경기 관람권, 항공권, 호텔 숙박권 구매도 가능하다. 제휴처 e쿠폰 교환권 및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포인트가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 결제수단을 이용해 복합 결제 또한 가능하다.

경영지원국 인사팀 강홍민
경영지원본부 인사팀 김형중

수상 소식

편집국 편집부 박경민 부장
이달의 편집상



편집국 편집부 박경민 부장이 11월 7일 한국편집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제289회 이달의 편집상(종합 부문)을 받았다. 박 부장은 10월 17일자 4면에 실린 ‘처음 봤습니다 KOSPI 3,748.37’ 제목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부서 ① 입사 후 부부 ② 요즘 관심사

김건민 / 동아일보
재계국

① 안녕하십니까. 신입사원 김건민입니다. 첫 직장을 동아일보와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선배님들께 성실히 배우며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② 최근 저의 관심사는 베이킹입니다. 평소 빵을 정말 좋아하는 뽕순이로서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주말마다 맛있는 빵집을 탐방할 계획입니다!

이연정 / 동아일보
출판국

① 안녕하세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합니다. 동아일보의 기사를 읽는 독자들에게 명료하고 정확한 시각 경험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② 서점에 들러 신간을 구경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술 서적과 SF소설을 자주 읽는데 최근 류츠신의 삼체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